

중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한반도 경제역학의 변화

- 일시 | 2011년 5월 24일 (화) 오후 2:00-5:00
- 장소 | 평화재단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프로그램 ●

14:00	개 회	
14:05	여는말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사 회	권영경 통일 교육원 교수
14:15	발 표 1	제 12차 5개년 계획과 환황해 경제권 구상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권역별 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14:35	발 표 2	향후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4:55	토 론	배종렬 한국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추원서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5:15	질의응답	
15:35	휴 식	
15:50	전체토론	
16:50	닫는말	
17:00	폐 회	

● 차 례 ●

- 03 발 표 1 제 12차 5개년 계획과 환황해 경제권 구상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권역별 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1)
- 25 발 표 2 향후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7차 전문가포럼
중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한반도 경제역학의 변화

폐넨날 2011년 5월 24일 | 폐넨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3-7 서초이오편 3층
(우 137-875) | 전 화 02-581-0581 | 전송 02-581-4077 | staff@peacefoundation.or.kr |
www.peacefoundation.or.kr

1) 김부용 박사의 요청으로 웹에는 PPT file을 별도로 게재합니다.

제12차 5개년 계획과 북중 경제관계 전망²⁾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

1. 중국 성장정책의 변화와 배경
2. 향후 북중 경제관계 전망³⁾
3. 시사점

2) 본 발표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011. 4. 28) “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 영향”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3) 12.5 계획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경제의 Grand Strategy로서 북한 경제의 비중을 고려할 때 12.5 계획이 북중경협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큰 틀에서 이와 연관된 향후 북중 경제의 흐름 또는 전망을 유추 또는 전망하고자 하였다.

제12차 5개년 계획과 북중 경제관계 전망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

1. 중국 성장정책의 변화와 배경

○ (국강민부(国强民副)) 내수지향 및 민생안정을 위한 질적 성장과 경제의 질적 구조조정으로 정책 선회

- 포용적 성장 : 내수 지향적 경제체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균형적 분배정책

-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에서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 동안 기존의 고성장노선을 연평균 7%로 감속 시사
-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도·농 간 빈부격차 해소, 3,600만 채 보장형 주택 확대공급과 실업률을 5% 유지 및 연평균 900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인 민생안정 도모에 중점

- 질적 구조조정 : 서비스 및 자원절약형 친환경 산업과 대외거래의 질적 업그레이드

-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IT 집적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육성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을 친환경 및 첨단산업으로 정책 보완
- 권역 및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강화와 그린 및 바이오등 신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질적 기반 마련

- 수출 분야에서 자주브랜드 제품 확대 및 수입 장려정책을 통한 무역불균형해소와 아울러 막대한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대폭 지원 예정

○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민생, 혁신, 환경을 통한 질적 성장과 글로벌 균형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으로 기조를 전환

- 고도 성장기 : 개발초기의 공업화 목표에서 현대화, 산업화 전환을 위해 투자, 수출, 저가의 노동요소를 내세운 정책

- 개발초기 공업화 목표로 산업불균형을 가져와 기술정체, 자본효율의 하락 초래
- 고도 성장기로 가면서 현대화와 산업화를 위한 투자주도형 성장방식은 물가상승 등 거시불안, 소득격차 확대 및 소비시장 발전 저해와 환경오염 발생
-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단순 제조업위주의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으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상대적 열위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야기
- 재정 및 금융시장도 정부의 공업화 전략의 중재자 역할 때문에 구조적 모순이 증폭

- 질적 성장기 : 민생안정, 기술혁신, 환경개선을 추구하여 글로벌 불균형을 안정화하는 질적 구조의 전환을 선택

- 12차 5개년 계획부터 투자, 수출, 저가의 노동력을 앞세운 고성장 정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
- 주요 전환 방향은 고도 성장기에 확대된 계층 및 지역 간 소득격차와 민생불안요소를 제거하려는 정책으로 전환
- 또한 수출위주의 외연적 성장정책으로 불거진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 간소화와 관세 인하조치를 통해 조절
- 아울러,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전통적 제조업에서 친환경 경 및 첨단 혁신산업 육성으로 정책 집중

< 중국의 성장 정책 방식의 변화 >

	성장목표	성장 정책 방식	산업육성
개발 초기	공업화	- 중공업 지원을 위해 농업 집단화를 추구한 불균형 성장 정책	중공업위주
고도 성장기	현대화, 산업화	- 투자, 수출, 저가의 노동집약적 요소를 활용한 개방화 정책	제조업 위주
현재 성장기	민생, 혁신, 환경	- 내수확대를 위한 질적 성장 정책으로 지속적인 성장 견지	차세대 신 성장 동력 발굴

○ 고도 성장기의 정책이 가져온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개혁개방시기부터 지금까지 고도의 성장정책을 위한 긴축과 확장적 거시조절 책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나타냄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5.9%로 최고점을 보인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0.7%로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과열조짐과 함께 3.3%로 상승함.
- 부동산가격지수는 2007년부터 증가율의 등락을 나타내다가 최근 2년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2010년 12월 전 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4%로 4월 12.8%의 상승률에 비해 절반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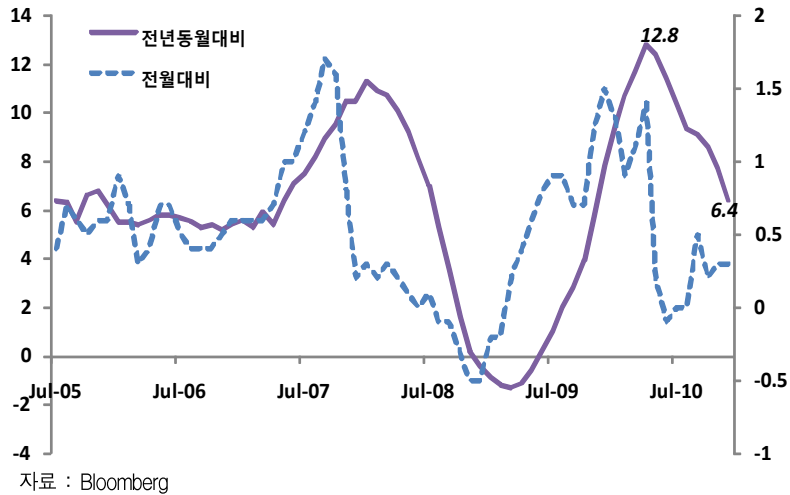
< 중국의 물가 추이 >

(단위:%)

	1978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지수	0.7	9.3	3.1	17.1	0.4	1.8	4.8	5.9	-0.7	3.3
생산자물가지수	0.7	8.8	2.1	14.8	-1.5	0.8	3.1	6.9	-5.4	5.5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 중국 70개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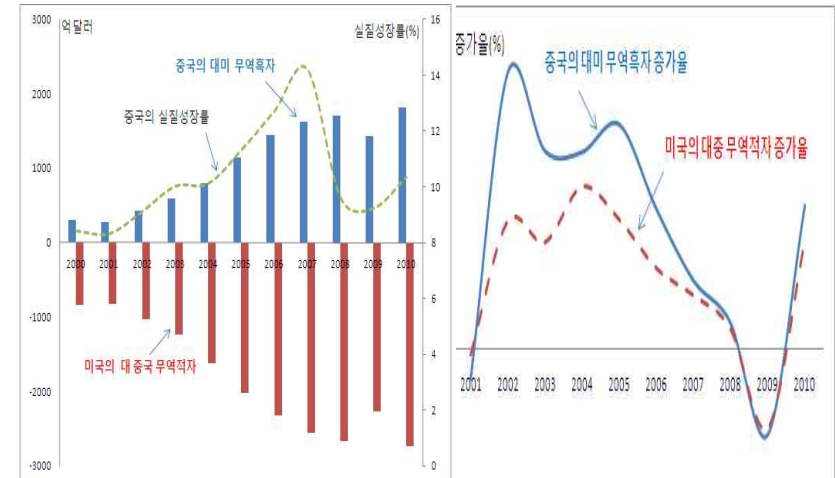


○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타난 대미 무역흑자가 증대됨에 따라 미·중간 무역마찰이 발생

- 2010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00년에 약 5배로 증가한 반면,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가 2배 증가함

- 증가율로 보면,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증가율이 커질 때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증가율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냄
- 수입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2007년부터 미국의 최대수입국이 되었고, 2010년 현재 미국의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은 3,600억을 상회하면서 2000년 1,000억 달러에 비해 약 3.6배 증가
- 미·중간 무역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위안화 시스템을 2005년 7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했지만 고정환율제와 유사한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1.

○ 계층 및 지역별 소득격차, 과잉 저축률, 지방재정 및 금융의 불균형과 환경오염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

- 소득격차 : 계층 간, 지역별 소득격차 심화

- 중국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2005)부터 농업의 산업화 추구를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 정책을 중시해왔고 이 결과 2010년 말 농민의 1인당 평균 순소득의 전 년 동기대비 상승률이 도시민보다 약 3.6%p 높아짐
- 하지만 2010년 도시주민 1인당 처분가능소득은 약 19,000위안으로 농촌의 5,900위안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소득격차가 존재
- 지역적으로 장강삼각주(长江三角株)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株)를 중심으로 한 동부 연해 지역과 동북 3성과 쓰촨 성 등 비교적 낙후된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차별화된 ‘선부론(先副論)’적 경제정책으로 사회주의 분배시스템이 약화

< 중국의 지역별 소득수준 비교 >

(단위: 억 위안 위안)

구분	2010년				
	江蘇省 (장쑤 성)	廣東省 (광둥 성)	遼寧省 (요령성)	四川省 (쓰촨 성)	전체
GRDP(억 위안)	27,227	45,636	18,278	16,899	397,983
1인당 GRDP(위안)	50,995 (7,700 달러)	46,990	-	20,500	29,524
도시주민의 1인당 처분가능소득 (위안)	22,944	23,898	17,713	15,461	19,109
농촌주민의 1인당 처분가능소득 (위안)	9,118	7,890	6,908	5,140	5,919

자료 : 2011江蘇省政府工作報告; ‘廣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遼寧省人民政府; 2011年四川省人民政府工作報告.

2. 향후 북중 경제관계 전망⁴⁾

○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성장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의 ‘대북 경제적 개입정책’(engagement)이 심화되었으며, ‘정부 주도’의

4) 12.5 규획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경제의 Grand Strategy로서 북한 경제의 비중을 고려할 때 12.5규획이 북중경협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큰 틀에서 이와 연관된 향후 북중경제의 흐름 또는 전망을 유추 또는 전망하고자 하였다.

북중 경제협력이 활성화

- 지속가능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북중 경협 강화
-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신 압록강 대교 건설 등과 같은 북한과 중국 정부 사이의 경제적 협력이 본격화
- 예컨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장길도(장춘-길림-도문)’를 개발 선도구역으로 하는 두만강유역 개발과 요령연해경제벨트의 일부인 압록강유역 개발 등이 국가수준의 프로젝트로 추진
- 특히, 2010년 중국 장춘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양국의 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정부주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앙 정부의 북중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⁵⁾

- 소득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낙후된 동북 3성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북중간 새로운 형태의 분업구조 및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⁶⁾

-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중국의 자원 공급지교역 및 소비 시장으로 발전
- 동북지역 개발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의 물류기지화 및 환동해 신경제권 형성 가능성
- 중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함께 내수 소비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업과 대북 위탁가공사업 활성화

5) 양문수, 2010. 11. 25. 한국수출입은행&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제5회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워크숍 발표문,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전략”

6) 북한과 중국의 무역구조는 교역상품의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구조로 평가할 수 있다. 양문수, 양문수, 앞의 논문. p 138.

○ 북한은 중국의 자원 공급지인 동시에 교역 및 소비 시장으로 발전 지속

- 북중간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북한은 중국에게 교역 및 상품 판매 시장으로 성장

- 2010년 중국의 대북 수입과 수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교역액이 34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함
- 북중 교역액은 2003년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8년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다시 3년 만에 2010년 30억 달러를 상회하며 급속 성장
- 중국의 대북 교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흑자구조이며, 수입이 약 32%, 수출은 68%를 차지함 (2010년 기준, 약 10억 9천 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
- 2011년 3월 북중 교역실적은 전월대비 174% 증가한 4억 5,400만 달러로서 사상 두 번째 큰 규모(2008년 12월, 4억 7,900만 달러)를 기록

< 중국의 대북 수출입 추이 >

연도		대북 수입		대북 수출		북중 무역 총액	
		천 달러	%	천 달러	%	천 달러	%
1998		20,478	5%	356,716	95%	377,194	100%
1999		41,722	11%	328,634	89%	370,356	100%
2000		37,214	8%	450,839	92%	488,053	100%
2001		166,797	23%	570,660	77%	737,457	100%
2002		270,863	37%	467,309	63%	738,172	100%
2003		395,546	39%	627,995	61%	1,023,541	100%
2004		582,193	42%	794,525	58%	1,376,718	100%
2005		496,511	31%	1,084,723	69%	1,581,234	100%
2006		467,718	28%	1,231,886	72%	1,699,604	100%
2007		581,521	29%	1,392,453	71%	1,973,974	100%
2008		754,046	27%	2,033,233	73%	2,787,279	100%
2009*		500,645	29%	1,209,636	71%	1,710,281	100%
2010		1,187,862	34%	2,277,816	66%	3,465,678	100%
2011	1월	129,168	37%	224,002	63%	353,170	100%
	2월	88,187	53%	77,535	47%	165,722	100%
	3월	183,981	41%	269,626	59%	453,607	100%
	누계	401,336	41%	571,163	59%	972,499	100%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 : 2009년 중국통계는 4개월(8~11월)간 미공개상태로 이 기간의 교역량이 미반영 되었음

- 중국은 광업관련 품목 외에 북한으로부터 주로 의류나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기계 및 부품, 설비 등을 북한에 수출

- 현재 북한 시중에 유통되는 경공업 제품 중 95% 이상이 중국산 또는 북중합작 기업이 생산한 제품임⁷⁾

< 2010년 중국의 대북한 10대 수출 품목 >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1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479	21.0
2	84	보일러와 기계류	245	10.8
3	85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	191	8.4
4	87	차량 및 부품	160	7.0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4	3.7
6	54	인조필라멘트	79	3.5
7	72	철강	71	3.1
8	10	곡물	60	2.6
9	55	합성섬유	55	2.4
10	73	철강제품	52	2.3

자료 : KITA

< 2010년 중국의 대북한 10대 수입 품목 >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1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397	33.4
2	26	광, 슬래 및 회	251	21.1
3	62	의류/부속품	161	13.6
4	72	철강	109	9.2
5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60	5.0
6	79	아연과 그 제품	48	4.0
7	25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 시멘트	31	2.6
8	61	편물제 의류	26	2.2
9	85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	21	1.8
10	28	무기화합제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등	14	1.2

자료 : KITA

7) KOTRA, "2010년 중국의 대북한 무역 및 투자동향"

- 중국의 대북 광물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북한의 광물자원은 중국에게 경제적 투자 가치가 여전히 존재

- 북한의 대중 수출은 주로 철광석과 석탄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3월의 광업 관련 품목은 전월대비 109%증가한 1억 3,100만 달러를 차지
- 대중 수입은 주로 석탄(유연탄 및 코크스)와 원유 수입 증가 때문이며, 3월 수입액은 1억 1,700만 달러로서 전체 대중 수입액의 43%를 차지
- 북중간 광물교역액은 2011년 3월 2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양국 간 전체 교역액 중 55%를 차지
-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가치는 약 6조 달러(7,000조원)에 달하며, 지난 5년간 북한내 20여 곳의 광산에 투자개발 및 운영권·채굴권 계약이 이뤄짐⁸⁾

< 북한의 광업관련 품목 대중 수출입 추이 >

연도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입		광업관련 무역 총액		
	천 달러	수출총액 대비	천 달러	수입총액 대비	천 달러	북중무역 총액 대비	
1998	3,939	19%	109,303	31%	113,242	30%	
1999	16,656	40%	109,185	33%	125,841	34%	
2000	16,132	43%	162,098	36%	178,230	37%	
2001	36,170	22%	205,889	36%	242,059	33%	
2002	51,309	19%	157,735	34%	209,044	28%	
2003	96,158	24%	218,018	35%	314,176	30%	
2004	228,630	39%	273,166	34%	501,796	36%	
2005	296,597	60%	369,243	34%	665,840	42%	
2006	285,377	61%	419,101	34%	704,478	41%	
2007	420,719	72%	490,753	35%	911,472	46%	
2008	554,495	74%	719,818	35%	1,274,313	46%	
2009*	371,699	74%	323,671	27%	695,370	40%	
2010	863,667	73%	649,315	29%	1,512,982	44%	
2011	1월	92,259	71%	60,702	27%	152,961	43%
	2월	62,947	71%	10,491	14%	73,438	44%
	3월	131,345	71%	117,219	43%	248,564	55%
	누계	286,552	71%	188,411	33%	474,963	49%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 : 2009년 중국통계는 4개월(8~11월)간 미공개상태로 이 기간의 교역량이 미반영 되었음

8) 한국광물자원공사. 2009. 9. “북한광물자원현황”

○ 동북지역 개발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의 물류기지화 및 환동해 신경제권 형성

- 장길도 개발과 연계한 라진항과 청진항의 개발과 압록강 유역의 황금평 개발 등을 통해 이들 항구와 주변 지역이 중국의 물류기지로 발전 가능성

- 장길도 선도구 계획 따르면 훈춘 통상구 국제 상품 무역 센터 건설, 연길 공항 국제물류 기능 강화, 훈춘 변경 경제 합작구의 무역·수출입 가공·물류 등의 다기능 경제구 형성, 다국 간 경제합작구 건설, 첨단전자·자동차부품수출가공, 방직·에너지·광산물 개발가공, 목제품·건축자재·기계설비 제조 등 산업의 육성 계획이 포함
- 중국의 단독개발계획에 따르면 압록강 하류를 따라 ‘단동임해산업단지’라는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며, 특히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되면 양국 교역과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황금평과 위화도에 단동의 배후도시로서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가능성⁹⁾

- 북한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라선 특구에 최근 중국 국유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 (이하 상지공사)¹⁰⁾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¹¹⁾

- 이러한 투자규모는 지금까지 공개된 대북투자 사상 최고액수로서 상지공사는 향후 라선 특구에 화력발전소, 도로, 부두, 석유정제공장, 제철소 등이 건설되고 무산 자철광산 등 지하자원개발과 국제금융은행 등에 투자할 예정
- 상지공사는 라선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5~10년에 걸쳐 동북아 최대핵심공업특구를 건설할 계획임
- 앞서 2010년 12월 김일영 부위원장이 이끄는 조선 합영 투자 위원회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라선특구와 압록강의 황금평 개발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최근 김정일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특히 지난 8월과 지

9) 건설 예정지인 단동 랑터우(浪頭)에 신 압록강대교 건설에 쓰일 원자재를 실어 나를 정박지 공사가 최근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11. 5. 9.

10) 상지공사는 석유, 가공무역, 광물자원투자, 국제금융 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는 중국의 국유무역회사로서 1995년에 설립되었음

11) 민족 21. 2011. 5월호 “북, 라선시에 20억 달러 규모 투자유치”

난 주 동북지역 방문을 통해 접경지역 개발의 강한 의욕을 나타냄

< 북중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현황 >

구분		투자자	주요 내용
다리	압록강제2대교	교통운수부·상무부	· 단둥~신의주 신압록강대교 건설 중 · 2010.12.31 착공
	두만강대교	훈춘시	· 훈춘~원정리 두만강대교 보수공사 · 2010. 6. 1 완료
도로	원정리~라진항 고속도로	훈춘시	· 취안허교~선봉~라진항간 54km 보수공사 · 2010년 3월 합의
	산허~청진간 고속도로	룡징시	· 룡징시 산허~청진간 고속도로 신설 논의중
철도	장춘~훈춘 고속철도	훈춘시	· 2015년 완공 목표공사 추진중
	도문~청진항 철도	도문시	· 도문~청진 170km 노후 철도 보수 · 2010년 공사 착수
발전소	中 만강루발전소 -北 문악발전소	길림성	· 2010. 3. 31 동시 착공, 2013년 완공 예정 · 수풍, 운봉, 위원, 태평만발전소 등 총 4개 압록강 유역 발전소 북중 공동 관리
항만	라진항 개보수 및 독점사용권	길림성	· 라진항 제1호 부두의 23호 장벽지를 보수 확장, 제4호 부두 신축 10년간 독점사용

자료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2011. 4. 22) “북중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 영향”

- 북중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사업은 동북아 주변 국가들간 현재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을 도모

· 현재 동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중이며, 여러 프로젝트 중 북·중 도로 항만 연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임

< GTI 추진 주요 프로젝트 >

	프로젝트 명	현재상황
교통	· 동북아(NEA)페리 항로 인프라 건설 구상	· 2009년 5회 운항뒤 잠정중단
	· 자루비노 항구 현대화	· 사업 협의중
	· 몽골~중국 간 철도 건설	· 사업 협의중
	· 훈춘~Makhalino 철도 건설	· 2004년 운송중단
	· 중국~북한 간 도로·항만 연계 사업	· 2010년 두만강대교 보수완료
자원	· 역내 에너지 협력 역량 강화	· 협력방안 모색중
관광	· 관광 협력 역량 강화	· 관광가이드 발간
투자	· GTI 투자 교육 프로그램	· 정부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
환경	· 두만강 수자원 보호 연구	
	· GTI 환경 협력	·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합의

주 : UNDP, Tumen Secretariat

- 중국과 몽골, 러시아, 남북한 및 일본을 연결하여 동북아 신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역내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 GTI를 통해 몽골과 중국 내륙 지방이 동해와 연결되면서 일본, 한국으로의 자원 수출과 교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GTI를 통한 몽골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 한국과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 등의 결합은 높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됨
- 현재 GTI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이지만, GTI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경제적 비중이 훨씬 커질 전망

< GTI국가들의 GDP와 구매력 지수(Power Purchase Parity) 전망치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국	GDP	5,365	5,988	6,699	7,504	8,415	9,437
	PPP	13.2	14.0	14.7	15.4	16.2	17.0
한국	GDP	991	1,069	1,129	1,198	1,288	1,386
	PPP	1.9	2.0	2.0	2.0	2.0	2.0
러시아	GDP	1,508	1,734	1,978	2,283	2,649	3,061

	PPP	3.0	3.0	3.0	3.0	3.0	3.0
몽골	GDP	5.5	6.6	7.1	8.9	10.4	11.8
	PPP	0.01	0.01	0.02	0.02	0.02	0.02
일본	GDP	5,293	5,377	5,549	5,744	5,972	6,192
	PPP	5.9	5.9	5.7	5.6	5.4	5.3
Total	GDP	13,142	14,174	15,361	16,737	18,334	20,087
	PPP	24.1	24.7	25.3	25.9	26.5	27.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0 Database (단위 : 십억 달러, %)
주 : 구매력 지수 비중은 183개 국가의 총합에서의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 북중경협이 확대로 북한이 GTI 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될 경우, GTI 사업은 급속도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북중 경협이 향후 GTI 사업에 추진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라선 특구 개발은 GTI 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
- 라선 특구 개발이 성공할 경우, 현재 GTI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교역 활성화와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

○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중국의 조업과 대북위탁가공사업 활성화

- 중국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대북 임가공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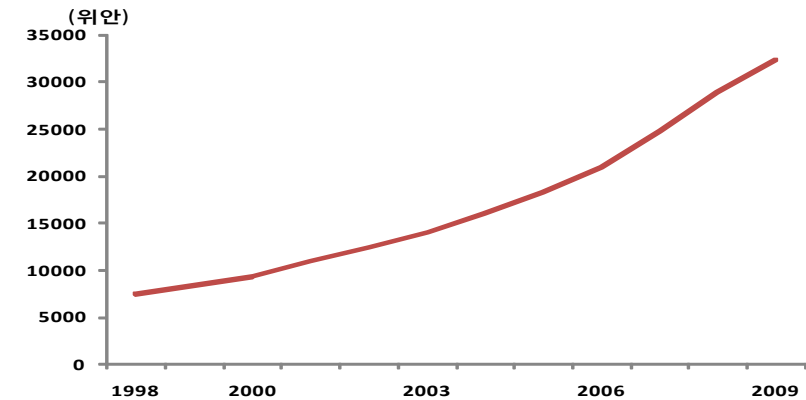
- 중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9년 기준 3만 2,244위안으로 1998년 이후 연평균 14%씩 상승해왔으며, 내수 증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향후 중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 지속
- 북한의 평균 임가공료는 일당 1달러(월 30달러)로 중국 비숙련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¹²⁾
- 중국 기업은 북한으로부터 최종 가공물품을 건네받은 후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가공사업을 안정적인 외화벌이 사업으로 선호
- 중국은 노동법 개정 이후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최근 근로자들의 3D

12) 통일연구원,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2011. 1. 24.

업종 기피현상으로 북한의 숙련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장기간 대북무역 및 투자에 종사해온 길림성 장백현의 A씨는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150만~200만 위안의 공장투자를 하면 3년 투자수익률이 2억~5억 위안에 달한다면 북한투자를 낙관¹³⁾

< 중국 노동자 평균임금 상승 추이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 소비 증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중국의 대북 관광 사업 활성화

- 중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 관광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더불어 대북 관광 수요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

13) 민족 21. 앞의 글

-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2007년 4,095만 명에서 2008년 4,584만 명으로 증가, 금융 위기 이후인 2009년에도 4,76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해외 관광객 증가 추이 >

(단위 : 만 명)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행객	1,047	1,213	1,660	2,020	2,885	3,100	3,452	4,095	4,584	4,766

자료 :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The yearbook of china tourism statistics 2010*.

- 2010년부터 중국의 대북관광 인원제한이 해제되면서 2010년 중국의 대북관광이 크게 확대되었음¹⁴⁾

- 단둥국제여행사가 모집한 북한 관광객 수는 2010년 11월 현재까지 3만 명 수준으로 2009년 1만 4천여 명 관광객에 비해 2배 증가
- 중국의 대북관광은 북경, 심양, 단둥, 연길 등 4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단둥국제여행사는 2010년 대북관광의 60%를 점유
- 연변국제여행사 등 연변지역 여행사들이 나진과 백두산 남쪽의 1박 2일, 2박 3일 코스 외에 회령, 청진, 칠보산, 금강산 등에 대한 단체관광 상품을 개설
- 지난 4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이 발표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의 효력 취소
- 북측의 조선 합영 투자 위원회와 유럽의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그룹인 캄핀스키그룹¹⁵⁾이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⁶⁾

14) 통일연구원(2011)

15) 세계적인 호텔리조트 그룹인 '캄핀스키'는 1897년에 독일에서 출발한 100년 역사의 호텔 리조트 그룹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20여 개국에 최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16) 민족 21, 2011. 5월호.

3. 시사점

○ 12. 5 기획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양적·질적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북중 경협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북중 경협의 강화는 12. 5 기획 기간 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며, 북중 경제적 밀착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함
- 북중간 경제적 밀착을 좌시할 경우 중국의 북한 경제 선점을 막을 수가 없음

- 이미 북한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소비, 유통, 서비스 분야까지 폭넓은 진출

- 북중 경협의 강화 또는 확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현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

- 북중 경협 강화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신중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
- 남북중 삼각 협력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예컨대 GTI 사업 참여 확대, 북중 접경지역 및 인프라 개발에 한중 동반 투자, 민간 기업의 투자 지원 등 다양한 대책 필요
-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북중 경협의 강화를 남북통일과 동북아 신경제권 건설에 기회 요인으로 삼는 지혜가 절실함

	북중 경협 확대에 대한 시각
긍정적 측면	- 북한주민들의 물자난 해소 및 소득 증대 - 북중 교역을 통한 식량, 생필품,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 - 중국의 대북 투자를 통해 미개발 자원 및 설비투자 - 북한의 시장경제 유도 및 개혁 개방 촉진 - 북한 경제의 성장을 통한 구매력 증대와 남북 경제력 격차 축소
부정적 측면	- 통일 과정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남한의 대북 영향력 축소 - 북중 경협의 남북 경협 대체 (임가공 및 제조업 분야) -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독점과 남북 자원협력 기회 상실 - 통일 경제 구축 과정에서 구조적 장애 발생 (경제구조의 이분화) - 통일 한국의 독자적 개발 정책 수립 불능 - 북한 내 중국 자산의 재산권 주장시 분쟁의 소지

< 참고 >

<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목표 >

	목표치
국민소득	○ 7% - GDP는 39조 8천억 위안 → 55조 8천억 위안 - 2011년 목표 : 8%
1인당 소득	○ 7% - 도시주민 1인당 처분가능소득은 19,109위안 → 26,810위안 -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5,919위안 → 8,310위안
소비자물가(CPI)	○ 4% - 2011년 목표 : 4% 좌우
부동산	○ 보장형 주택 20% 달성 - 2011년 목표 : 1000만 채
일자리	○ 실업률 4.6% 이하로(도시 일자리 창출 : 4,500만 명) - 2011년 목표 : 도시 새 일자리 창출 900만 명 이상, 등록 실업률을 4.6% 로 억제하기 위해 중앙재정에서 423억 위안 투입
도시화	○ 51.5% - 47.5% → 51.5%
삼농문제	○ 약 9천 885 억 위안 투입(2011년)
교육	○ 교육경비 4% - 2012년 목표 : 재정성 교육경비 / GDP (=4%)
서비스	○ 4%(서비스업 증가치/GDP)
환경	○ 산림율 21.66%로 목표 - (비 화석 에너지/1차 에너지 소비)를 11.4%로 상향 -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감소를 8%에서 10%로 확대 - 단위 GDP 에너지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16%, 17%로 감축
과학기술	○ 2.2%(R&D/GDP)
재정정책	○ 2011년 목표 : 재정적자를 9,000억 위안

자료 : 新世紀(2011年 第10期)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7차 전문가포럼 |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한반도 경제역학의 변화

NOTES

NOTES

NOTES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7차 전문가포럼 |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한반도 경제역학의 변화

NOTES